이상기후에 농산물 수급 불안 지속

농경연 '농업관측 12월호' 분석…평년보다 사과 22% 등 생산량 줄어
정부, 내년부터 국가 차원 기후변화 대책 마련…생산·유통 과정 정비 등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사과와 배 등 과일류부터 쌀, 배추 등 농산물 생산과정 전반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수급 불안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생육기에 내린 많은 비와 장기간 폭염 등으로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폭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의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에 따라 가격이 안정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이달 사과와 배 등 과일류부터 엽채류까지 생산·출하량이 모두 예년보다 감소하면서 가격은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매년 악화하는 농산물 이상기후 피해 및 수급 불안 해결을 위해 신규 재배적지 육성 등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을 내놨다.

2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농업관측 12월호'를 분석한 결과, 올해 사과 생산량은 46만 2600 t 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여름철 장마로 인해 이례적인 사과 수급대란이 일어났던 전년보다는 생산량이 17.3% 늘었다.

하지만 이달 사과 출하 예상량은 3만 2500 t 으로 전년보다는 6.7% 증가한 데 그쳤고, 평년에 비하면 여전히 22.2%나 적은 수준이다. 이는 올 여름 최장기간을 기록한 폭염 및 많은 폭우 등 과일류 생육에 부적합했던 기상 여건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과 도매가격 역시 부족한 출하량으로 인해 지난달 기준 5만 6886원을 기록했는데, 전년(5만 170원)과 평년(2만 9704원)에 견줘 각각 13.4%, 91.5% 높은 수준이다.

사과와 함께 과일 대란의 주역이 됐던 배 역시 올해 생산량은 19만 2000 t 가량으로, 이상기후로 인해 생육·저장 등에 영향을 받아 썩거나 물러져 판매할 수 없게 된 비상품과까지 모두 포함해도 전년보다 평년보다 3% 적은 실정이다.

특히 올 상반기 정부가 과일을 중심으로 폭등한 농산물 물가 안정 대책을 위해 2023년산 등 배 저장 물량을 대폭 시장에 풀면서 저장량 역시 전년 대비 20%가량 낮은 상황이다. 향후 이상기후로 인한 출하량 감소 문제가 악화됐을 경우 가격 조정을 위한 저장량 우선 출하 등의 대책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감귤 등 과일류 대부분의 품목들이 이상기후로 인해 올해 출하량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올 여름부터 김장철까지도 수급 불안으로 인한 가격 폭등 문제가 지속됐던 배추 등을 중심으로 한 엽근채소류 역시 이상기후로 인한 생육 부진 및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생산량이 전년과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KREI는 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년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 문제가 지속되자 내년부터 국가 차원의 농산업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지난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주요 혁신 전략으로는 ▲쌀산업 개편 ▲농산업 구조 혁신 ▲농촌 활력 증대 ▲정부 지원체계 혁신 등 4가지 과제를 내세웠다.

특히 농산업 구조 혁신 세부 계획으로는 이상기후가 빈번해지는 등 기후변화 여건에서도 농·축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해 생산·유통 등 전과정의 체계를 재정비하고, 관련 연구개발 과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기후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해가는 여건에 대비하기 위해 신규 산지를 개발하고, 재해 예방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등 생산량 증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비교적 기후 여건의 영향을 조금 받는 스마트 농업 활성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수요가 많은 주요 농산물들의 안정적인 공급에 집중할 예정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농사만사'

싸라기가 '금싸라기' 돼야 하는 이유

쌀 소비 감소 속 활용가치 '업' …푸드 업 사이클링 주축

쌀을 도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싸라기는 말 그대로 부스러진 쌀알이다. 정확한 통계치는 아니지만, 보통 쌀을 도정 과정에서 70%는 상품성을 지니고 왕겨와 쌀겨 등 30%는 도정 부산물로 분류된다. 이 30%가 모두 싸라기인 셈이다.

좋은 쌀과 맛있는 쌀밥에 대한 한국인의 자존심은 세계에서 으뜸이다. 하지만 재배기술과 도정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우수성을 자랑한다지만, 이 명성에 비해 도정 과정에서 생산되는 싸라기의 활용 방법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싸라기 함량이 높은 쌀은 밥을 하는 과정에서 수분의 흡수가 빨라져 '죽밥'이 되는 등 상대적으로 밥맛이 떨어지게 된다. 농정당국은 지난해 '보통' 등급의 싸라기 혼입 한도가 다른 등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특 3.0%, 상 7.0%, 보통 20%)되어 있다고 보고 쌀 품질 개선을 위해 관련 기준을 강화해, 올해부터 20%였던 기준을 12%로 낮춰 시행하고 있다. 쌀 품질 개선 차원에서 혼입 한도 기준을 높인 것인데 쌀소비 촉진 차원의 마땅한 조치라 하겠다.

한데 떡이나 죽을 해 먹거나 닭 모이로나 썼던 싸라기가 최근 화려한 변신을 하고 있다. 싸라기를 업 사이클링 한 피부 미용 제품을 판매하는 스타트업 '금싸라기' 얘기다. 크기가 작다는 이유로 사용되지 않는 싸라기를 적재적소에 활용해 그 가치를 다할 수 있게 하자는 게 이들의 목표란다. 농민들의 노고가 결실로 이어지는 세상을 꿈꾸는 이 업체의 주축은 놀랍게도 대학생들이다.

이들이 가장 처음 출시한 제품은 아기쌀 '클렌징 바(비누)'다. 싸라기에 대한 낯선 인식을 개선하고자 싸라기에 '아기쌀'이라는 귀여운 이름을 붙였다.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쌀의 미백, 진정 효과를 그대로 담아낸 제품으로 일반적인 클렌징폼을 사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문제나 유해 성분 문제를 개선했다고 한다.

이 외에도 클렌징 바를 분말 형태로 만들어 무르지 않고 보다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아기쌀 '솝 파우더'와 아기쌀이 가진 전분 입자를 활용해 피부 자극 없이 유분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한 '퓨어 세팅 팩트' 등을 상품화했다.

싸라기의 변신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서원대의 보육기업인 '아이디스픈'은 재고 처리가 마땅하지 않은 싸라기를 가루로 만들어 과자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쌀과자 '라이스 크래커'를 출시했다. 쌀과자지만 그냥 쌀이 아니라 싸라기를 이용한 푸드 업 사이클링 제품이다.

여기에 무엇이든 입으로 가져가는 아이들을 위해 남거나 처치 곤란한 식품을 활용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장난감을 만들고 있는 푸드 업 사이클링 기업 (주)크리에이터스랩이 내놓은 교육용 키트 '라이스아트'도 눈에 띈다. 쌀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일부 깨지거나 작게 바스러진 싸라기에 식용색소를 입혀 만든 제품이다. 상품 가치를 잃고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싸라기가 예술활동의 소재로 탈바꿈한 것이다. 색색의 싸라기로 다양한 예술작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농가에서 노력했지만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최근 심각해진 이상기후와 벼멸구 등 병충해 피해, 벼 재배면적 축소 등이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쌀 생산량이 급감했고, 그만큼 싸라기도 증가했다. 버려지는 싸라기에 애가 탄다. 싸라기의 환골탈태(換骨奪胎), 싸라기의 '금싸라기'로의 변신이 간절한 이유다.

/bigkim@kwangju.co.kr

전남도,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성공 개최 힘 모은다

전남도는 20일 서울에서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자문위원회를 열어 미식, 마케팅, 문화관광, 학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함께 지속 가능한 박람회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자문위원회에선 자문위원과 총감독, 관계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람회 기본계획과 세부 콘텐츠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자문위원인 김태희 한국미식관광협회장은 "단순히 음식을 맛보는 것을 넘어 음식과 관련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느끼는 게 매력 포인트"라며 "박람회가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경제와 관광, 미식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프로젝트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순선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미식과 다양한 산업을 융합하는 점에서 그동안의 박람회와 차별화되는 행사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2025년 9월부터 한 달간 목포 일원에서 세계의 미식관, 음식 관련 융복합 산업관, 미식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 친환경농업 확산·안전성 강화 모색

인증대책 회의서 품목 다양화 등 논의

전남도는 지난 20일 친환경농산물 인증대책 회의를 열어 인증 품목 다양화·겨울철 왕우렁이 월동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대책 회의는 전남도 중점 추진 방향인 유기농 중심의 품목 다양화와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인증 확대 등을 모색하기 위해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선 2025년 인증목표 설정을 위해 올 한해 시군별 과수·채소 등 품목별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일반농가의 친환경 벼 재배전환 유도 방안과 겨울철 왕우렁이 월동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다.

특히 7년 만의 친환경직불금 단가인상에 이어, 친환경 벼 공공비축 매입가격 인상 및 2025년 공공비축 매입물량 확대 등 정부의 친환경 지원정책 확대에 따라 시군별 들녘경영체, 쌀 전업농 등 규모화된 일반 단지를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통해 친환경 재배 전환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왕우렁이 피해 예방을 위해 겨울철 논 말리기, 깊이갈이 등 시기별 관리요령을 농가에서 이행토록 지도·점검하고, 왕우렁이 우심지구 특별관리를 통해 친환경농업 안전성 교육과 연계해 관리요령도 지도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농관원 전남지원, 협업과제 성과 보고대회 개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전남지원은 지난 17일 '2024 전남지원 협업과제 성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대회는 올해 우수 협업과제 시상 및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 협업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남도, 전남도 농업기술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등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행사로는 시상식과 협업과제 추진계획 발표 등이 진행됐다.

시상식에서 농관원 전남지원은 올해 추진한 20개 협업과제 중 우수 성과를 인정받은 9개 과제가 각각 최우수상 1개, 우수상 3개, 장려상 5개 등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어 '민·관이 함께하는 직불100 캠페인',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농약분석법(230성분) 정립 및 카탑분석법 개선', '가공품 농산물 원산지 표시정보 음성안내 QR코드 시범사업' 등의 협업과제에 대한 추진성과를 공유했다.

또 오는 2025년 협업과제 계획으로는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의를 통해 선정한 '직불100 캠페인 확산', '이·통장 직불교육 강사양성을 통한 마을단위 교육 시범사업' 등 11개 협업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